



2008 국회의원 간담회

2008 Conversation with Congressmen

사회발전을 위한 해외시민교육기관 초청 국제행사

시민교육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



1. 시민교육센터 *Center for Civic Education, CCE*

CCE는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(LA)와 워싱턴 DC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비영리 자영단체이다.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전국에 걸쳐 시행되고 있으며, 전 세계 70여 개 나라와 손을 잡고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.

CCE는 1964년, 캘리포니아 주립대학(UCLA)에서 결성된 시민교육(Civic Education)에 관한 한 위원회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,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이 위원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구성된 모임이었다. 이 위원회는 1969년에 단체로 발전되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(The State Bar of California) 산하에 있다가 1981년 비영리 조직으로 독립했다.

CCE의 교육 목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입헌민주주의 제도 및 헌법의 기본 원칙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익히며, 의사 결정을 내리고 대립을 조율할 때 기꺼이 민주적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.

CCE는 의회에서 통과된 '민주주의 교육법'에 준하여 미교육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으며, 추가 지원은 미국무성과 국제개발기구 등을 통해 받고 있다.



2. 국제사업부서 *CIVITAS*

CCE는 현재 70개국의 시민교육 기관 및 유럽의회(47개국)와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. CCE의 국제 네트워크에 소속된 나라들은 미국 내 각 주와 제휴하여 교환교사 프로그램 등 실제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지원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. 이러한 공동협력은 상대방의 경험과 전문성, 그리고 프로그램상의 결과물이 주는 이점을 서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.

국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CCE 프로그램들은 원래 미국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것이었으나, 이중 몇 개의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에서도 훌륭하게 적용되어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발전되고 있다.

CCE는 매년 '시민교육 세계 의회(The World Congress on Civic Education)'를 개최하고 있고, 이곳에서는 각 나라와 주에서 경험한 최고의 결과물이 공유된다. 10차 '세계의회'는 2006년 5월 폴란드 바르소(Warsaw), 11차는 2007년 5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, 12차는 2008년 5월 모로코 이프란에서 열렸다.



3. 찰스 퀴글리 *Charles N. Quigley*

미국 시민교육센터를 40년 동안 이끌며 미국 내 시민교육의 표준을 만들어낸 인물이다. 시민교육의 실행자이자 활동가이며 프로그램 개발자로서, 현재 미국 내에서는 물론 세계 70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<프로젝트 시티즌(Project Citizen)>을 개발했다. 미국 내에선 48개 주 입법기관을 조직하여 '국가회의(National Conference)'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, 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국가적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. 미국 외에선 유럽의회 소속 47개국과 그 외 70개국의 시민교육 기관들을 조직하여 매년 시민교육의 세계 보고대회라 할 만한 '세계의회(The World Congress)'를 개최하고 있다.

